

중동 리스크에 흔들린 삼성 주가... 증권가 “저가 매수 기회”

美的 이란 공습 이후 13.21% 하락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0조 전망
“메모리 반도체 업황 여전히 강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반도체 호황을 타고 22만원(증가 기준) 폭전에 뒤틀린 삼성전자 주가가 중동 정세 불안에 흔들리고 있다. 2월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패닉셀을 겪은 후 12일까지 삼성전자가 13.21% 하락했다. 12일에는 ‘18만 전자’ (18만7900원)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저가 매수하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전쟁상황이 삼성전자의 매력도와 배당 수익률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일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재 D램과 낸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 확대는 내년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다.

그는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가격을 넘어선 범용 D램 가격 상승은 큰 폭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고, 엔비디아향 프리미엄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출하 본격화 역시 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추론 AI 성능의 급격한 향상과 함께 2030년 AGI(범용인공지능)를 대비한 피지컬 AI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추론 AI와 피지컬 AI의 확산은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이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5년 장기공급계약(LTA) 논의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실적

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특히 1분기 메모리(D램, 낸드) 부문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1배 증가한 38조원으로 예상된다”며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메모리 영업이익(32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170조460억원에서 220조2050억원으로 29.5% 상향했으며, 내년 영업의 추정치도 301조8470억원으로 직전 대비 57.8% 상향 조정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동지역의 종전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메모리 업황의 선형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7만5000원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D램 시장에서 현물가격은 기업 간 거래 기준인 계약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있다. 신형 DDR5의 경우 290%, 구형

DDR4는 130%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DDR5 현물 가격은 0.5% 더 올랐다. DDR4 가격은 3.1%만 떨어졌다.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하락이 제한적인 것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졌다. 주가는 급락한 반면 실적 추정치는 유지됐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성장성과 수익성은 차치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낮은 배수다. 최소한 시장 하락을 주도할 만큼의 부담되는 배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당수익률도 5% 수준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3개년 주주환원 결산의 해다. 잉여현금흐름 60조 원 이상에 대해 특별주주환원이 가능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인 25% 배당 성향을 가정할 경우, 올해 4분기 DPS(주당배당금)는 8110원, 9월 증가 기준 예상 배당 수익률은 4.7%(우선주 6.7%)에 이른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다음주 ‘주총 슈퍼워크’... LG엔솔 등 총출동

상장사 2727곳 중 211곳 몰려
20일 하루에만 110개사 열려

국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 막을 올린다. 3월 초까지만 해도 비교적 한산했던 일정이 셋째 주 들어 급격히 몰리면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가 한꺼번에 주총에 나서는 ‘슈퍼워크’가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가운데 3월 셋째 주(16~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모두 211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2개사, 코스닥시장 107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다.

올해 주총 시즌은 3월 첫째 주 코스닥 상장사 현대에이디엠바이오 1개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둘째 주인 9~15일

에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2개사 등 총 9개사가 주총을 진행하며 예열 국면을 이어갔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며 본격적인 주총 레이스에 들어간다.

특히 18일과 20일에 주요 그룹 계열사가 대거 집중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8일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가 나란히 주총을 연다. 한화손해보험과 한화투자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제일기획, 이노션 등도 이날 주총 일정을 잡았다.

19일에는 롯데정밀화학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하이마트 등 롯데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카드,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한화오션, 효성화학,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주요 상장사가 줄줄이 주총을 개최한다. 일진홀딩스와 일진전기, 일진하이솔루스 등 일진그룹 계열사도 같은 날 몰려 있다.

주총 일정이 가장 빡빡한 날은 20일이다. 이날 하루에만 110개사가 정기 주총을 열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아를 비롯해 유한양행,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주총에 나선다. 코스닥시장에서도 LS증권, 동국제약, 로보스타, 퓨러티어, 데이원컴퍼니 등 다수 상장사가 같은 날 주총을 연다.

이처럼 셋째 주에 일정이 집중되면서 올해 정기 주총 시즌의 분수령도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총 시즌에는 배당, 사내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보수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쏟아지는 만큼, 기업별 안건과 주주 반응에 따라 시장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순자산 ‘1조원 클럽’ 국내 ETF 80개 육박

2024년말 34개사 지난해에만 66개

증시 활황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순자산 1조원이 넘는 ETF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1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ETF 가운데 순자산 ‘1조원 클럽’에 가입한 ETF는 7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6개에서 두 달여만에 12개 ETF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내 우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집중투자 하는 신한자산운용 ‘SOL AI반도체소부장 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지난 10일 1조원을 돌파했다. 연초 4600억원 수준이던 이 ETF의 순자산은 두 달여 만에 5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종목에 투자하

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반도체 ETF’도 이미 지난 1월 27일 기준 순자산 1조원을 넘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ETF가 2006년 12월 22일 처음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4년 말까지 순자산 1조원 이상의 ETF는 3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 시장 급등으로 ETF에도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1조원 클럽’ ETF는 크게 늘었다. 2024년 말 34개였던 1조원 이상 ETF는 지난해에만 약 두 배가 늘어나면서 66개가 됐다.

순자산 5000억원이 넘는 ETF도 지난 10일 기준 147개로, 지난해 말 125개에서 22개가 증가했다. 2024년 12월(66개)과 비교하면 14개월 만에 곱절 이상이 늘어났다.

/신하은 기자

“6G에 투자”... 삼성운용 ‘글로벌배당펀드’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Mobile World Congress)를 계기로 6세대 이동통신(6G)이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관련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6G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글로벌6G성장플러스배당 펀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글로벌6G성장플러스배당 펀드는 저궤 위성, 위성통신, 광통신, 통신반도체 등 6G 통신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 성장기업 외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글로벌 통신사 등을 균형 있게 편입한다.

6G는 AI 시대를 현실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초고속, 초저지연, 초공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최근 막을 내린 MWC 2026에서는 통신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전달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연결하고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무선 통신망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려는 엔비디아 중심의 기업등



망 ‘AI-RAN 얼라이언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I-RAN 얼라이언스는 기지국에 고성능 AI 연산 기능을 탑재해 통신 기지국에서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AI 서비스 대중화 및 상용화의 걸림돌인 지연과 비용을 해결할 6G 네트워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운용, 밸류업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

연초 이후 수탁고 936억 순증

밸류업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KB자산운용의 밸류업 펀드 2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KB자산운용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운용하는 ‘KB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펀드’와 ‘KB스타 코리아 밸류업 인덱스 펀드’ 등 밸류업 펀드 2종의 합산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의 밸류업 펀드 2종의 연초 이후 수탁고는 936억원 이상 늘어났다.

최근 1년 기준(A클래스) 인덱스형인 ‘KB스타 코리아 밸류업 인덱스 펀드’는 149.4%, 액티브형인 ‘KB스타 코리



아 밸류업 인덱스 펀드’는 150.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15.2%)을 웃돌고 있다.

‘KB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펀드’는 내부 리서치를 기반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에 선별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